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작은 보금자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시 84:3)



다윗의 소원

다윗은 도망쳐 다니면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이웃들과 자신이 살던 곳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쫓기지도 못하고 도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 몸집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집 근처에 머무르기를 열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새들이 하나님의 성전지와 지붕 밑에 작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무척이나 부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의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3절). 다윗의 마음에는 겸손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렸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는 내적 평안과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을 옷과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탄식을 늘어 놓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영적인 혼란 상태에서 믿음의 교제권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던 이 작은 새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깃든 새들

이 새들이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얻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가? 다윗은 바로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기쁨으로 짐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와 제비. 동진 두날에 팔리고 살 수 있는 가치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동지와 음식이 필요한 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불평을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종일 기쁨으로 노래하고 소리를 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물, 전기, 그리고 추운 날씨 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2000년대를 사는 인간이 어찌 이런 일도 해결하지 못 합니까? 어째서 기차나 비행기 등을 하늘에서 떨어지며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째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는 초대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초대 받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런 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전 안에 그러한 자들이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물들은 하나님 내어 쫓음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보금자리

이 새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것들은 평안하고 적절하며 영구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보금자리건 간에 그 새들은 보금자리를 자신들에게 맞도록 고쳤습니다. 무말뚝이 없었기 그곳은 이 새들에게 알맞은 곳이었습니까. 그들은 안전과 안식, 교제, 기쁨, 그리고 친목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똑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기쁨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기쁨 안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만족함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얻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친숙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함께 교제할 수 없는 동물들처럼 말입니다. 까마귀는 공작처럼입니다. 독수리는 사자입니다. 가바우지란 새는 육신이 아름답습니다. 매는 전 투성이 강합니다. 타조는 너무 격합니다. 닭은 인간에게 너무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엉이는 아무렴을 사랑합니다. 반면, 이 참새와 제비는 작고 귀엽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습니까? 이에 비하여 우리들은 야심이 큼니다. 우리들은 명성이나, 직위, 권위, 그리고 영광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집을 최첨단 전자장치로 꾸미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야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떠들며 적대적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보금자리

이 새들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린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보금자리는 어린 새끼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새들은 그 새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하기보다 피아노 레슨, 축구교실, 테니스, 합창단, 또는 과외공부나 학원에 보내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안전하고 참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제비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집을 찾고 만족하였습니다. 제비는 그 자신이나 새끼들이 여기에 붙잡혀있다고 불안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예배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예배가 따분하고 지겹도록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멋지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참 행복으로 데려다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선택된 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비들이 그들의 보금자리에 되돌아 오듯이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집에 되돌아 올 것이라는 믿음을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안전한 곳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녀들은 이러한 면에서 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기 때문에 부유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 때문에 자식이 많습니다. 이들은 시간의 제약받지 않고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을 따릅니다. 훈련과 성실한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없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자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한 곳에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거할 겸비한 자

여러분께서 모두들 “나는 단지 작은 참새, 천하고 보잘것 없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네”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간증과 같이 낮아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궁전에 거처하고 있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아들을 회개하여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한마리의 참새처럼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니 기쁨, 교제, 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여”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보신 여러분은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아멘.

IV. 한국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한국의 빛'이 되기를 바라셨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이러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살았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셨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열방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진파했다.

1.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와 종'과 '공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1-1. 이사야의 우상(偶像) 배격 사상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게도 이와 같은 경고를 똑같이 선포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상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만물(萬物)은 모두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결코 창조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자가 받을 영광을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비롯한 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받들어서 할 경배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자기 때문이라. 이 땅의 만물은 우상이 가로채는 현실과, 영적인 방에 걸려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파헤쳐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사야도 우상을 심하게 배격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의 강대함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강한 이유가 그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의 골짜기같은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참된 하나님임을 믿었고 그 때 그들은 안전했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적으로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부터는 오히려 그들에게 사정없이 짓밟혔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우상에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엿보는 것은 이것이며, 한 것같이 여기시느니라'(사 40:15,17)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향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혹 장대사를 보이며 후사를 진술하라...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사 41:22~23)라고 명령하십시오. 우상들의 무능력을 지적하시며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나 여호와와 나의 기쁨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방의 허리를 굽혀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사 45:1).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도 있는 줄을 뵈일 것과 올 일을 고할지이다"(사 44:7).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를 해석하지도 못하고 미래조차 알 수 없으며 역사를 주관할 수 없는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창조자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겠으며 누구 형상에 비기겠느냐"(사 40:18). 이사야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여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보일요. 허탄한 것뿐이니라"(사 41:28~29)라며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의 헛됨을 경고한다. 우상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더 나아가 열방에게까지 선포된다. "너희는 열방 중에 광광하고 공포하기를 그쳐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일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강이 부스르리라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르진다 하라"(렘 50:2). 우상을 섬기는 열방을 향해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다. "제 또는 곳에서든지 작은 곳에서든지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6).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사 54:5).

우상숭배의 헛됨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을 격파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선포하시며 이방에게 빛을 베풀 종을 세울 것이라 선포하셨다.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불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까 그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와 의로 너를 불렀으니까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사 42:1,6).

1-2. 여호와와 종

이사야는 여호와와 '종'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이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표현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종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종 나 이스라엘이라 나의 택한 아람이 나의 밭 아브라함의 자손이"(사 41:8, 참조 43:10; 44:1,21; 49:3). 둘째로, 모세(민 12:7)와 다윗(삼하 7:5,8), 선지자들(렘 7:25)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 개인을 표현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라 내 사자의 목표를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사 44:26, 참조 45:4; 49:5; 50:4,9). 셋째로,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도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표현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까 그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와 의로 너를 불렀으니까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사 42:1,6 참조 48:20; 49:6). 이 '종'이라는 표현은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된다.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와 종인가? 이는 특정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이다. 여호와와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섬겨야 한다. 또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모든 족속을 섬겨야 한다. 결국 여호와와 종이란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모든 열방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되는 자이다.

1-3. 공의

여호와와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타락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여호와와 종은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만일 이방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도 선포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이다.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정당성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도 변명할 수 없다.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제공한다. "섬들이 내 앞에 잡힐까와 민족들이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 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사 41:1, 참조 42:1,4; 렘 5:4).

1-4. 백성의 언약(사 42:6)

여호와와 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자들이다.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열방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곧 그분의 '언약'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것이요 영화로우리라"(사 11:10). 선교 사역이 충실히 이행될 때 이방도 백성의 언약을 소유하게 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 이름이 높다 하라"(사 12:4, 참조 11:9,10; 42:6; 49:8, 렘 31:31).

1-5. 이방의 빛(사 42:6)

여호와와 종은 이방에게 빛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빛은 구원을 비추는 빛이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빛이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선교의 이유를 설명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증거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사 49:6) 하겠느니라 하니"(행 13:47).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던 시몬 역시 이사야를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 "네는 나의 주의 구원을 보았으시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눅 2:30~32).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사 32:15; 44:3 참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사 49:6 참조) 내 증인이 되리라(사 41:1~4; 43:8~12; 44:8 참조) 하시니라"(행 1:8).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다.

독립국가연합(CIS) 지체들의 공동체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독립국가연합(CIS)이란 구소련 12개국을 말합니다. 총천교회 외국인 선교부 CIS팀은 12개 나라 중 7개 나라(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온 근로자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2000년 외선부로부터 독립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CIS지체들은 매주일 복지판 지하2층에서 대략 60여 명이 모여선교와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예배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주2회 심방 또는 전화를 이용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CIS지체들을 위한 리더양성훈련(16주 코스)과 예배 및 전도훈련(16주 코스)을 매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 교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훈련을 수료한 인원은 약 16명 정도이며 이들은 금요일에 참석하고 총천교회원에서 총천교인들에게 찬양과 기도, 말씀을 배우고 익혀 천국일꾼으로서 살아가고 힘쓰고 있으며 지난주 토요일에는 안산에서 전도지를 배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기본훈련도 합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에게만 전도하며 전도지를 배포하였는데 내국인들도 참석하게 되어 그들에게도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 때 왜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전도하는지를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라고 복음을 전하는 CIS형제, 자매들을 보며 이들을 통해 말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들 나라도 복음이 확장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멘.

CIS형제 자매들은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주일 성수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총천의 성도들이여, 저들에게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영환 (인수집사, 외선부 CIS팀장)

귀한 사명

스리랑카의 내각보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실론티의 생산지로 유명한 '누아라 엘리아'로 출발했다. 해발 800m의 산악지대를 5시간 이상 올라가서 목척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가 속소로 결정한 곳에는 소슬불교 제단과 작은 불상이 있었다.

아침마다 두 명의 짝을 지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알리고 전도지를 전했다. 그들은 서론 언어로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들었다. 그들이 반겨주는 모습을 보며 분명히 저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리라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때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했다.

노방전도를 할 때였다. 두 사람의 경찰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다가서서 '아유보안(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들도 웃으며 '아유보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한국에서 왔다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도지를 전해 주었다. 반갑게 받아 읽어보더니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고맙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는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성경책을 뜯어 강물에 뿌리고 순교했다고 한다. 그러나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머지않아 이곳 '누아라 엘리아'에도 불교대신 대신 하나님의 성전이 서고 여기저기 십자가 불빛이 비취길 것을 확신한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떠난다. 나도 일흔살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때라도 복음을 들고 다시 떠날 것이다.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양 속지 (권사, 16교구 5지역 스리랑카팀)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나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신 20:1).

이십삼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알마티에서 1500km 떨어진 '크즐오르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속소와 차량문제로 부딪혔다. 집주인에게 쫓겨나는 등 다섯 번이나 속소를 옮겨 다녀야 했다. 선교일정이 변경되어 거주지 증명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기도 했고 과격한 한 무슬림 남자가 나의 손목을 비틀고 전도지를 빼앗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은 우리 팀을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였고 영혼을 구원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불타게 했다.

운전기사 '열도스' 형제와 통역 '김윤기'는 주님을 깊이 열정했다. 마지막 저녁식탁에서 우리 팀은 성경책을 건네주며 1년에 두 번씩 읽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영혼구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라는 낯선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야겠다고 결심하며 돌아왔다.

염재봉 (인수집사, 13교구 1지역)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복음을 전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나의 몫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대열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팀장님은 나에게 선교에 함께 가자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섣뚱 대답하지 못하고 말실언에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3월 이상의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했고, 나는 한 마디 잘못도 있다고 있다가 선교 출발하는 날 아침에 해고시키면 그만 두리라는 각오로 편지 한 통을 쓴 뒤 몽골로 향했다.

우리 팀은 몽골 '온다라한'의 외곽 지역에서 조를 나누어 집들을 방문하며 예수님을 전했다. 주님께 순종하는 권사님들의 열정과 젊은 집사님들의 겸손한 모습 때문인지 그곳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이곳까지 불리오는 성의를 보였다. 사역 삼일째 되는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건물은 요리사와 경비원이 찬송가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 곧이어 여자 경찰 한 명도 찾아왔다. 우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들 후, 신부가 받았더니 남자 경찰이 찾아 왔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고, 그날 저녁에는 일곱 명의 여자들이 찾아 왔다. 그 중에는 전에 왔던 여자 경찰도 있었다. 아침에는 우리를 저지하려고 경찰이 찾아오고, 저녁에는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경찰이 찾아오더니 정말 재미있었다. 우리들은 성경에 줄을 그어 주며 함께 읽고 예배드렸다. 그 후,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물었다. 팀장님은 총천교회와 예배 식습을 써주며 여자 경찰에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인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들의 예배가 비록 작지만 높이 들린 등경처럼 그곳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도했다. 우리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은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배웅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도 자들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는 것같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몇몇이를 두고 떠나는 것같은 모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을 뒤로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옛날에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잘 믿었다고 폄박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나라까지 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망하며 숨어다니다가 지쳐서 아보먼 언덕에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고, 무던히도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했다. 그 끝없는 사랑의 손길에 사로 잡혀 "예수 스트리트에게 (예수 믿으세요)"하고 몽골에 전하고 와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본다.

나의 나린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양 순교 (집사, 10교구 7지역 몽골팀)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4일(월)-8월 13일(수)	인 도	10교구 1지역	장영환
8월 4일(월)-8월 14일(목)	스리랑카	17교구 14지역	이인영
8월 4일(월)-8월 12일(화)	필리핀	Dale Ashworth 팀	
8월 5일(화)-8월 15일(금)	카자흐스탄	7교구 3지역	임창식
8월 5일(화)-8월 13일(수)	우즈베키스탄	16교구 4지역	홍원석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교구 12지역	구원섭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0교구 3지역	김영록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5교구 4지역	허 오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7교구 1지역	윤석민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7교구 3지역	이호일
8월 5일(화)-8월 14일(목)	스리랑카	6교구 7지역	문연식
8월 5일(화)-8월 14일(목)	스리랑카	인 도 8지역	노태경
8월 5일(화)-8월 14일(목)	스리랑카	11교구 7지역	김인술
8월 5일(화)-8월 13일(수)	우즈베키스탄	9교구 4지역	홍성옥
8월 5일(화)-8월 13일(수)	우즈베키스탄	11교구 4지역	김철환
8월 5일(화)-8월 14일(목)	인 도	2교구 4지역	구재환
8월 5일(화)-8월 15일(금)	카자흐스탄	2교구 7지역	박창서
8월 5일(화)-8월 15일(금)	카자흐스탄	12교구 4지역	윤우신
8월 6일(수)-8월 16일(토)	불가리아	11교구 3지역	석영식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스스탄	2교구 11지역	박상대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스스탄	9교구 9지역	이명희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스스탄	13교구 2지역	최준호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스스탄	13교구 5지역	김은철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4교구 1지역	이상석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16교구 1지역	김병권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16교구 2지역	김장영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16교구 7지역	이기숙
8월 8일(금)-8월 16일(토)	우즈베키스탄	3교구 7지역	김신국
8월 8일(금)-8월 16일(토)	우즈베키스탄	5교구 8지역	양기수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7월 26일(토)-8월 4일(월)	인 도	8교구 8지역	손기현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2교구 10지역	박홍규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2교구 12지역	한송규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2교구 13지역	엄복섭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7교구 1지역	박용기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1교구 7지역	양한원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4교구 8지역	류기명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6교구 3지역	박광식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6교구 6지역	고재승
7월 28일(월)-8월 6일(수)	불가리아	17교구 10지역	권병철
7월 28일(월)-8월 8일(금)	키르기스스탄	2교구 2지역	이계인
7월 28일(월)-8월 8일(금)	인 도	9교구 2지역	강희창
7월 28일(월)-8월 8일(금)	인 도	10교구 6지역	강만호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스스탄	3교구 1지역	최남하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스스탄	3교구 2지역	이달옥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스스탄	3교구 3지역	문효식
7월 29일(화)-8월 8일(금)	불가리아	3교구 3지역	김희선
7월 30일(수)-8월 8일(금)	불가리아	6교구 4지역	김영주
7월 29일(화)-8월 8일(금)	카자흐스탄	14교구 2지역	전은배
7월 29일(화)-8월 8일(금)	카자흐스탄	예바다부	조종환
7월 30일(목)-8월 8일(금)	우크라이나	8교구 1지역	추병창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2교구 8지역	정운환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3교구 7지역	이병영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7교구 4지역	정부조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7교구 2지역	김홍주
7월 31일(목)-8월 7일(목)	키르기스스탄	4교구 7지역	신선길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7월 21일(화)-7월 30일(수)	네 팔	3교구 4지역	김성호
7월 22일(화)-8월 1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1지역	동방용운
7월 22일(화)-8월 1일(금)	카자흐스탄	15교구 6지역	박종태
7월 22일(화)-8월 1일(금)	키르기스스탄	9교구 6지역	김연태
7월 22일(화)-8월 2일(토)	네 팔	1교구 6지역	김대웅
7월 23일(수)-8월 1일(금)	네 팔	6교구 2지역	김규석
7월 23일(수)-8월 1일(금)	네 팔	6교구 5지역	김태식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37)

작년에 카자흐스탄에 갈 때는 의무감이 많았습니다. ' 과연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선교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슬람이 40%, 러시아 정교가 28%입니다. 특히 우리가 갔던 곳은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두 가정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고 본격적으로 전도하려는데 시간이 부족해 돌아오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작년에 뿌린 씨앗을 확인하고 아쉬웠던 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해도 작년에 갔던 '파라스' 지역으로 8월 5일부터 10박 11일간 갑니다.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가까지 역경을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원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덟 명이 간다고 했는데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가 하면 다리를 다쳐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결국 인원을 모으려고 하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함께

사역할 사람을 위해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부터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합류하고 대학부에서 자원하는 등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충분히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만한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년에 갔던 지역은 지난 문제로 인해 드러내 놓고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은 많이 못하고 눈치를 보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전도를 중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을 수 있게 언어 훈련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음을 바라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2교구 7지역장 박창서

내게 오신 놀라운 분

이 소 희 (고등부)

나는 아빠의 전도로 충현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초등학교생 때부터 다녔는데 중학생 때에는 학교와 학원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프고 힘들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났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아픔도 사라지게 하셨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슬픔보다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훌륭한 분이시다. 주님을 몰랐던 나는 현재의 모습을 위해서만 살았고, 답답한 일들을 풀이놓을 곳이 없어서 마음 속에 담아두기만 하였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방황하여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나에게 막대한 존재였고, 그저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니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며 항상 우리를 곁에서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주님을 앞으로 더욱 믿고 하나님의 딸로서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할 것이다.

고등부에서 엄마와 신일남 선생님의 권유로 성극부에 들어오게 되었다. 성극부에서는 성극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 성극부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극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즐거워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같이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 것이다.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신실하심, 계획하심에 표현된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인간은 사망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마귀와 싸웠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어 인간을 통해 일고자 하시는 목적을 보시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그 민족을 제사장들을 세우시어 그 민족의 죄악을 동물에게 전가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제사자의식을 제정하였는데 민족은 절기 때마다 그리고 개인은 수시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구약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제사를 드려도 인간의 범죄는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민족은들로 갈라져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듯 무너지고 황폐된 민족을 다시 세우고 마른 뼈와 같은 당시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보내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빛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핍박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다. 그들의 핍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피 흘림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것이며, 죄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은혜이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낮아짐과 죽음. 이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 낮아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호와와 신원의 해를 전파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분의 영광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내며 그분의 피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 안에 비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때에는 모든 천사와 모든 민족이 한 곳에 모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소극적인 것으로도 표현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낮아짐과 죽음으로 열방에게 생명을 보시는 것이요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향한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적극적인요 광대한 표현이다. 이것도 낮아짐과 죽음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나를 향한 관점으로만 십자가를 보고 있다면 이제는 열방을 향한 그분의 뜻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신미애(장학생)

성극을 돌아보면

박 윤 정 (고등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 예배, 기도, 찬양, 이렇게 나의 신앙심으로 돌리는 영광이 있거나 하면 더 나아가서는 한 영혼을 건지는 전도나 선교활동도 아름다운 일도 있다.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은 이것보다도 더욱더 많은 것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방법은 고등부 성극부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몸짓으로 그분께 보이는 것이다. 성극을 세상의 연극과 비슷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뛰어난 끼와 재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하여금 감동을 가지게도 하고 즐겁게도 할 수 있다. 그 무대 위에서는 오로지 자신만의 세계인 것이다. 내가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은 움직인다. 자신을 쫓는 관객의 눈빛에서 나를 높이며 자족감을 얻는다. 하지만 성극은 이런 점에서 자신들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항상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할당할지 묻고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성극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주님만이 주인공이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성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것이다. 동작 하나, 대사 한 마디, 발걸음 하나마저 온통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극과 세상의 연극의 큰 차이인 것이다. 아니,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교의 차원에 있어서도 성극은 그냥 말로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여준다. 속마음에 때려 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라도 낫지 않나 말이다. 성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할 수 있다. 마음에서 오는 감동은 오랜 여운을 남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그 성극의 여운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과 목소리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돌릴 수 있어서 기쁘다.

오직 말씀으로

의탁과 위탁, 그리고 침입 ②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동시에 주님께 의탁을 해야 한다. 위탁 역시 천국을 침입하는 행위이다. 위탁이라 함은 주님께 맡기는 것인데 위탁을 하면 소극적이 되어야 정상이지 어떻게 침입하는 적극성을 뭘 수 있겠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위탁이 적극적 행위이며 분명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지혜를 전지셨나이다. 지가 여호와께 위탁하니 구원하시라. 저를 기뻐하시니 전지시라 하시니라"(시 22:4-5). 위탁이라 함은 자기를 완전히 항복하고 포기하는 행위이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당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이다. 나의 목숨이 달려있는 절경이다. 즉 '의탁'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에 나타난 의미와 같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영원을 위탁하였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게 위탁할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눅 9:23 참조)라고 말씀하신다. 이렇듯 내 목숨이 걸려 있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 위탁인데 어떻게 소극적이 될 수 있겠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벧전 5:7). 우리는 이 말씀을 안일한 의탁을 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9a).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곧 이어지는 말씀에 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았나니라"(벧전 5:9b). 다시 말해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의미는 '고난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받을 것인데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져 쓰러지지 않도록 천국을 소망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침입하는 자의 자세이다.

이제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주님께 위탁하고 있는가? 위탁하고 있는가?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기를 부리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있는가? 주님께 진실로 위탁하는 자는 주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철저히 감당할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도는 오직 한 가지 일,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조 (권오섭)

내 삶의 모든 것

이 진 규 (집사, 장년2부, 새가족부 교사)



예전에는 장년2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새가족부 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가족부에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한 동네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라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모두 한 반으로 묶었습니다. 장년2부 성도들은 이미 훈련을 잘 받아서 굳이 말을 안 해도 잘들 나왔는데 새가족들은 일주일애 한 번 이상씩 전화를 해서 심방을 해야 합니다. 신입원들이 한 동네 사람들이어서 가정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상담하기가 자연스럽습니다. 매년에 70여명 정도를 전도하는데 그 중 반 이상이 떨어지 나갑니다.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여 오며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전도에 열중하기 시작한 이유는 영혼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믿음을 얻었을 때는 그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가며 내 신앙을 지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일 때문에 만난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는 영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여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전도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형은 저를 이렇게 여겨서 제 말을 깊이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형으로 나게 하신다' 형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지요. 그럼 우리 가족이 더 빨리 복음을 알았을 텐데'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금식을 하며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께서 '너처럼 저처럼 높은 처음 본다'라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무당이나 불교인을 전도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사와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전도에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1000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선교를 다녀 왔습니다. 그들은 선교지에서 영혼의 소중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지요? 왜 충헌 교회 교인은 늘지 않는 걸까요? 선교를 가기 위해 한 사람을 얹어놓기만 하고 갔다 와서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한국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선교지는 어차피 외지이지만 한국의 사람들은 모두 알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이것을 믿을까?', '이것을 전하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충헌의 성도들이 영혼 사랑에 충실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충헌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전도하길 소망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어찌 다 선포하리요?

구주의 복음을 어찌 다 선포하리요?

측량 못할 그 은혜 어찌 다 갚으리요?

내 구주여,

내 모든 생명과 소유를 취하시어

당신의 모든 영광을 끊임없이 선포케 하소서.

구주께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그것은 결코 많지 않으며

아무리 많은 일로 구주를 섬겨도

그것 역시 결코 많지 않으니

내 구주여,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슬픔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사랑하고

당신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게 하소서.

플 게르하르트(Platz Gerhard/1807-1878)

참고 구절: 고전 6:20, 갈 6:14

♫ 다음 주일 찬송

476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뉴욕의 큰 거리의 파업 현장에서 어린 아이가 위험에 처하자 아이의 어머니가 앞사 지령에 이르러까지 어린 아이를 높이 쳐들어 어린 아이를 구출하였다. 작곡 부탁을 받은 W. H. 돈(William Howard Doane, 1832-1915)이 오르간으로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 연주하였는데 이 곡을 들은 크로스비 여사가 파업현장의 아이 구출 사건을 떠올리며 갑자기 소리쳤다. "아, 그 곡조는 마치 주 예수의 품에 평안히 안기라고 속삭이는 것 같군요. 이제 제가 써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찬송시가 탄생하였다.

이 곡의 작사자 F. J. 크로스비(Fanny Jane Crosby, 1820-1915)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안고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다. 6주 밖에 되지 않는 갓난 아이 때부터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할아버지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떠져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

1절: 예수의 품 안전하고 주의 은화한 가슴 안전하네, 주의 사랑 속에 내 영혼 편히 쉬리, 둘러, 천사들의 음성 내게로 들려온대, 영광의 날과 우리 떠나 너머로

2절: 예수의 품 안전하네, 미움 좀 먹고 근심 없는 곳, 세상 유혹 없는 곳, 죄가 나를 해치지 못하리, 슬픔의 검은 그림자 없고 의심과 공포 없는 곳, 이젠 조금만 더 아픔 겪고 조금만 더 눈물 흘리면 되리라,

3절: 내 삶의 소중한 피난처 예수 주 날 위해 죽으셨네, 내 육신 언제나 만세반석 위에 굳게 서리, 여기서 밤 지나가까지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고 환급 강에서야 아침 통들 보기가 지 기다리게 하소서

후렴) 예수의 품 안전하고 주의 은화한 가슴 안전하네, 주의 사랑속에 내 영혼 편히 쉬리,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충헌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새·가·족·을·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70	권오범	1 대학부	985	김동순	10 장년부	이현희(10)	1000	김은수	9 장년부	남기석(3)	
971	김복자	1 소망부	강옥원(1)	986	김종희	13 청년부	안숙자(13)	1001	김복희	9 장년부	김종현(6)
972	윤호진	1 장년부	신명주(1)	987	정은주	13 대학부	백향원(10)	1002	홍호순	9 장년부	문현자(12)
973	김장재	1 장년부	신명주(1)	988	백정일	13	백향원(10)	1003	김진원	9 대학부	김진도(19)
974	김인종	1 장년부	영정자(3)	989	이리미	14 청년부	이정화(14)	1004	강금진	9 대학부	
975	양영자	2 장년부	이영선(12)	990	류판	14 장년부		1005	이혜경	9 대학부	이혜경(7)
976	황규권	5 장년부	김정희(7)	991	고상훈	14 장년부	황진숙(8)	1006	윤미희	9 고등부	김순재(4)
977	도유진	4 고등부	김순희(4)	992	손경희	15 장년부	김지영(7)	1007	박민희	9 대학부	최지규(4)
978	김태관	5 장년부	양기우(5)	993	이영하	16 장년부	이미숙(14)	1008	박정민	9 대학부	이훈영(19)
979	백현숙	6 장년부	강정순(4)	994	이영미	16 장년부	최정자(16)	1009	김동훈	9 대학부	김성우(4)
980	최지은	6 장년부	강정순(4)	995	이정래	16 소망부	전홍배(8)	1010	최은수	9 대학부	
981	백선숙	8 장년부	유호순(17)	996	김태미	19 장년부	이인숙(11)	1011	김진현	9 대학부	나승은(4)
982	박승일	9 장년부	박태남(9)	997	김태현	19 고등부		1012	윤희원	9 대학부	강김재(4)
983	이정원	9 장년부	박태남(9)	998	권혜련	19 장년부	유재복(17)	1013	김미라기라	19	최수진(14)
984	류예지	9 장년부	임정훈(10)	999	김정숙	19 장년부	황정영(4)	1014	김미라기라	2	최수진(10)

* 충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김민재 (중등2부, 부회장)



관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저와 항상 동행하시며 힘을 때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가사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중등2부 부회장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회장으로서 저는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에게 교회와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예배드릴 때 떠드는 친구들에게 주의를 주는 일 등을 합니다. 예배는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배우는 시간인데 장난치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참잡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슬픔입니다. 그러나 '나' (더하기) 모양같이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 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온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며 하고"(행 3:6)의 주제 성구와 같이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려는 그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게 감사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저에게 저들보다 건강한 몸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변화하는 삶을 살고싶어요

이초환 (중등1부)

중등1부는 7월 24일에 충현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면회회와 성가대는 하루 일찍 가서 수련회 첫 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갔다는 이유로 은혜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활동에 얼마나 잘 참여했으며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는지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련회 설교 중에 변화와 변형과 변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변형은 변화한 형식이고, 변절은 나쁘게 변한 것입니다. 즉, 상한 것은 변질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성공했을 때 이것을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변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거름으로 하여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변화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신앙고백

채수호 (중등2부)



충현교회를 다니면서 또 중등2부에서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중등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감사했다. 솔직히 설로암(중등2부 소식지)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친구들에게 원고를 받거나, 중등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예배게 편집하는 것 등 모두 쉽지 않았다.

설로암의 내용을 성경적인 것으로 알차게 채워야 하는 데 활동을 하면서 보니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행복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이다. 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중등3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 나는 교회 수련회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정성이나 저녁 먹고 노는 시간이 정말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철 없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지금은 설교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 기쁨은 줄릴 때도 있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많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 뜻깊은 수련회였다. 특히 세족식 때 선생님께서 자제히(?) 씻겨주어서 좋았다. 참 재미있는 수련회였다.

♥ 나는 수련회를 소그룹 활동으로써 오게 되었다. 처음엔 비록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정말 뜻깊은 수련회였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만약 오지 않았다면 고등부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수련회의 공동체 훈련 때에는 덥고 힘들었지만 서로 협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더운 날씨에 물에 젖어서 시원하고 재미 있었다. 많은 잠이 부족했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나는 친구들과 함께 둘째 날 아침에 수련회에 참석했다. 친구가 같이 은혜 받자고 했지만 나는 수련회보다 공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와 보니 생각한 것보다 좋았다. 제일 좋아했던 것은 어머니같은 선생님이 발을 씻겨 주었을 때였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수련회에서 다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다.

♥ 이번 수련회는 참으로 좋았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피곤하고 졸리기도 했지만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가 하였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조별 발표였다. 같은 조 친구들끼리 발표 준비를 하면서 재미있었고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교회 소식

모임

1. 정기집회
일시: 6월(수) 수오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전사 1차회 월례회
일시: 6월(수) 수오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3. 안수집사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01호
4. 경찰 전도회 월례회
일시: 10월(주) 15:30
장소: 본당 112호

◆ '총현교회 찬송가 제1집' 판매

총현교회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전력하고 있는 즈음에 '총현교회 찬송가 제1집'이 테이프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두 18곡이 수록된 제1집은 '여호와의 노래'와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찬양합니다"라는 시편 96편 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총현의 일꾼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교회에 동참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판매처: 사무국 / 판매대금: 테이프 1,000원 / CD 3,000원)

◆ 남녀 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 위원회에서 200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3년 7월 첫 주 ~ 2003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3년 1월 ~ 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교육관 2층)
4. 준비서류: 사신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등

2003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회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0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집의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총회 (김교관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50	가독론 (고광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위건달 목사)	교육관 304호		
8월 17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현덕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방준영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자? (안창덕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지혜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5시, 갈릴리움)		

이반주 세례기도회 담당

	4(월)	5(월)	6(수)	7(목)	8(금)	9(토)	10(주일)
설교지/기도자	김경수/김은호	이희식/이성식	양재용/교광원	안창덕/박종배	김익희/이정학	이태복/송인숙	김교성/김연식

예배 담당안내 (8/6-8/10)

날짜	예배	예배 전담원	사 회	기 도	설 교
8/6	수오 I	오전 10:00	정현민	이서훈	올림픽에 나신 것은(단 64-5) 아담의 묵사
8/6	수오 II	오전 11:00	정현호	김영철	올림픽에 나신 것은(단 64-5) 아담의 묵사
8/8	금요일회	특별강연: 배비나눔(공동부 찬양대)	이정호	김동하 목사	
8/10	주일 I	예수는 나의 형이요 회교 박이윤관 장현희(함평)와 오게스트	장 훈	이창호	은혜로써 보금자리(사 41-4) 임현덕 목사
8/10	주일 II	주 날개 빌라가 편히 쉬라 회교 박이윤관 장현희(함평)와 오게스트	안성익	임영철	천년과 풍요(사 61-12) 정현호 목사
8/10	주일 III	주 날개 빌라가 편히 쉬라 회교 박이윤관 장현희(함평)와 오게스트	사정인	김환기	작은 보금자리(사 41-4) 이창호 목사
8/10	주일 IV	내외마음에 솔솔이 가득차도 알도 이상(인제) 찬양대 솔로리스트	위관달	정태두	작은 보금자리(사 41-4) 이창호 목사
8/10	주일 V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회교 박이윤관 장현희(함평)와 오게스트	유병희	전종홍	하나님 집에 거하는 기쁨(사 86-12) 고광환 목사
8/10	주일말회		이영철	이영철	내 하나님여 어디 있소(사 42) 김동하 목사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운전직 - 경비직
2. 자 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본
당회장 추천서(서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총현교회 사무국 ☎ 552-8200

백인교회 총현교회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신교회(영남)	김은호 7교구 영남교회	노광원 영남교회	오전국 영남교회	이병학 영남교회
최태민 영남교회	임영철 영남교회	강도봉 영남교회	이 훈 영남교회	남선우 영남교회
정운식 영남교회	김영길 영남교회	조인제 영남교회	김종구 영남교회	최무길 영남교회
김현제 영남교회	이창호 영남교회	차진석 영남교회	김광남 영남교회	이종석 영남교회
이병욱 영남교회	안종욱 영남교회	임무현 영남교회	최기훈 영남교회	이재영 영남교회
전종홍 영남교회	전종현 영남교회	이정우 영남교회	김단홍 영남교회	황영일 영남교회
한승규 영남교회	김영수 영남교회	김환기 영남교회	원용철 영남교회	이형수 영남교회
안동현 영남교회	황인환 영남교회	김주형 영남교회	최유진 영남교회	이계인 영남교회
박덕양 영남교회	이태식 영남교회	정태두 영남교회	박용규 영남교회	전영욱 영남교회
조종환 영남교회	배춘식 영남교회	김영달 영남교회	이성호 영남교회	박찬식 영남교회
최지훈 영남교회	노영환 영남교회	박철구 영남교회	정정길 영남교회	신상수 영남교회
강철형 영남교회	고세승 영남교회	김영은 영남교회		

■ 부목사

이종대 영남교회	정현민 영남교회	김동하 영남교회	서광진 영남교회	박인기 영남교회
여경진 영남교회	유병희 영남교회	이종철 영남교회	김영환 영남교회	여국근 영남교회
김교성 영남교회	이유진 영남교회	안창덕 영남교회	방영준 영남교회	나광영 영남교회
정진호 영남교회	김승덕 영남교회	이성호 영남교회	고광환 영남교회	위관달 영남교회
김익환 영남교회	김정수 영남교회	장 훈 영남교회	임현덕 영남교회	이희식 영남교회
최주철 영남교회	하종철 영남교회	안진현 영남교회	이태복 영남교회	정종신 영남교회
양재용 영남교회	이성진 영남교회	조규호 영남교회	최광규 영남교회	이재영 영남교회
■ 전도목사 이정철				
■ 어전도사				
정현희 영남교회	전도사 영남교회	윤인숙 영남교회	한영준 영남교회	김연식 영남교회
홍은주 영남교회	이국자 영남교회	김장자 영남교회	안태순 영남교회	김정현 영남교회
조소자 영남교회	강덕림 영남교회	김정신 영남교회	장재구 영남교회	최복식 영남교회
전은희 영남교회	김종순 영남교회	김정자 영남교회	이수경 영남교회	
■ 전담강도사 강인규	■ 전담지주사 서준성			
■ 전담목장지 김소민				
■ 단기선교사 강기영(소방)				
■ 협력선교사 허요섭(영남)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회교가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회교가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팔복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 간	차 량
회신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공요절회	오후 11:00	공요절회 후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학 부	토, 오, 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4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